

書 評

소동파 문학의 현장 속으로(1-2)

류종목 지음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1권(508쪽), 2권(452쪽)

조 규 백\*

소동파(본명 소식蘇軾, 1036~1101)는 중국 북송대가 낳은 중국의 문호이다. 소동파가 살았던 북송(北宋)은 중국의 문예부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을 중시하였으며, 유불도(儒佛道) 사상이 합류하는 기풍이 있었다. 그는 시, 사(詞), 산문, 부(賦) 등의 문학영역은 물론, 서법, 회화, 의학, 경학(經學), 요리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또한 정치가 행정가이기도 했다. 그는 스스로 유가(儒家)임을 인정하면서도 도가와 불가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면서 포용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본서는 저자가 동료와 제자들과 함께한 소동파 문학에 대한 답사기이다. 본서는 2016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영광을 누리었다. 분량도 방대하여 1권은 490쪽, 2권은 433쪽이나 된다.

저자 류종목 교수는 국내 소동파 연구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학자이다. 그의 소동파 관련 저역서만 하더라도 《소식사연구》, 《팔방미인 소동파》,

---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여산진면목》, 《소동파시선》, 《소동파사선》, 《소동파사》, 《소동파 산문선》, 《정본 완역 소동파시집1》, 《정본완역 소동파시집2》 등이 있다. 그만큼 저자는 소동파의 사(詞)연구는 물론, 소동파의 시, 사, 산문 등의 번역, 그리고 평전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특히 그는 필생의 과제로 소동파시의 완역을 목표로 하여, 전7책(冊) 분량으로 예상되는 소동파시전집 가운데 제2책을 완역하였다. 제3책도 곧 발간될 예정이다. 주지하듯이 소동파의 시는 방대하고 난해하다. 저자는 정말 대단한 정력과 열정, 의지력을 지닌 학자이다.

필자가 평소 관심 있게 읽어본 중국문학기행류의 저서로는 《허세옥의 중국문학기행》(허세옥 저, 학교재, 2000)과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중국인문기행》(송재소 저, 창비, 2015)가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중문학자이고 허세옥 교수의 저서는 국내 첫 본격적인 중국문학기행서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중국문학을 전반적으로 아울렀으며, 그 폭과 넓이, 그리고 깊이가 독자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10여 년 동안 중국의 전지역을 드나들며 문학유적을 답사한 결과물이다. 여기서 저자의 중국문학에 대한 해박한 조예가 곳곳에서 돋보이고 있다. 한편 한문학자인 송재소의 저서는 중국의 ‘인문학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어, 이백, 소동파, 도연명, 백거이, 왕유, 유우석 등의 관련 한시와 함께, 중국술과 중국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지리적 범주는 강서성, 안휘성, 남경 등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후속작업이 기대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중국어 표기법이 이채를 띠고 있다. 그는 중국의 지명, 인명, 사찰명, 유적 등의 고유명사는 한자를 우리말로 읽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언어의 편리성과 가독성을 중시한 방법이다.

이 두 권은 모두 한국 학자에 의한 중국문학기행서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류종목의 본서는 소동파의 장기 거주지 및 일대를 살펴 본 문학현장 기

행에 관한 세계 최초의 저서이다. 이는 근 천년 동안 역대 중국학자도 이루어 내지 못한 쾌거이다. 소동파의 문학현장의 극히 일부만을 답사한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미지의 땅을 내내 저자와 함께 여행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만큼 생동하는 문체로 문학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리라. 필자는 본서를 두 번 읽었다. 첫 번째는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읽었고, 두 번째는 서평을 쓰기 위해 읽었다. 두 번째 읽으니 문학기행의 모습이 더욱 연상이 잘 된다. 극소수 가 본 곳은 더욱 선명하게 연상되고, 가 보지 못한 대다수의 유적지도 마치 내가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재독하니 처음에 읽을 때 보지 못한 것도 다시 발견하게 된다. 그만큼 첫 번째 읽을 때 놓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독(再讀)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저자는 그의 동료와 제자들과 하는 소동파시 독회에서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잘 풀리지 않는 난해한 구절을 접하곤 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소동파 시의 창작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동파 시의 창작 현장을 답사하여 시에 묘사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로 했다”(머리말)고 저작동기를 표현하고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답사는 총 7차로 진행되었다.

- 1차 답사 : 2002년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소동파의 고향인 사천성 미산(眉山) 일대와 그의 첫 번째 부임지인 섬서성 봉상(鳳翔) 일대를 답사했다.
- 2차 답사 : 2004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산둥성, 하남성, 안휘성, 허북성 일대를 답사했다.
- 3차 답사 : 2005년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절강성 일대를 답사했다.
- 4차 답사 : 2006년 8월 13일부터 8월 27일까지 호남성, 호북성 및 강서성 북부 일대를 답사했다.
- 5차 답사 :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강소성 일대를 답사했다.
- 6차 답사 : 2009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광둥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및 강서성 남부 일대를 답사했다.

7차 답사 :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장강 상류의 중경 및 호북지역을 한 차례 더 답사했다.

도합 7차례, “105일에 걸쳐 중국 안에서만 2만 킬로미터, 즉 5만 리 이상을 이동한 대장정이 되었다.”(머리말) 또 “원래 소동파 시의 창작 현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답사를 시작했지만, 기왕 가는 김에 소동파의 다른 작품은 물론 그 부근에 있는 여타 문인의 대표적 작품이 창작된 현장까지도”(머리말) 겸하여 답사하였다. 그리하여 더욱 효율적이며 다채롭게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매번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전체 인원은 늘 적정 인원인 열 명 정도씩이어서 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머리말) 동행자들과의 행로 도중 동파 시사(詩詞)의 낭독도 실행하였고, 간혹 자작 한시도 곁들여 운치를 보태고 있다.

본서에서는 각지의 버스, 택시 등의 교통비, 호텔비, 식사비 등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록하여 오히려 생생한 기행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본서는 또한 중국어 표기법에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의 송재소의 경우와 같이, ‘고대와 현대의 인명, 지명 및 음식 이름 등을 모두 한국 발음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또 중국의 화폐 단위도 ‘위안’으로 표기하지 않고 ‘원’으로 표기했다.’ 이런 점은 독자로 하여금 읽기에 훨씬 편리하게 하였다. 규정된 중국어 표기법은 중국어 전공자인 필자도 읽기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오늘날의 날짜는 양력으로 표기하고, 옛날의 날짜는 음력으로 그냥 둔’ 점도 좋았다.

이처럼 중국 음식이나 기물의 명칭을 한글 발음으로 통일 표기한 점은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휘궤(火鍋)”, “얼후(二胡)”처럼 한국 발음이 오히려 어색한 것은 중국 발음으로 표기하였는데 이 점도 좋은 방법이다. 언어표기는 편리성에 바탕을 뒀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외에도 곳곳마다 사진을 첨부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고, 장마다 개략적인 지도를 첨부하여 지리, 공간개념을 쉽게 파악하게 한다. 적재

적소에 문학작품을 인용하여 문학기행서로서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

저자는 말하고 있다. “소동파가 머물렀던 곳이면 어디나 지금도 그가 아직 살아서 그곳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그는 북송의 서쪽 끝인 미산(眉山)에서 태어났고, 동쪽 끝인 등주(登州)와 북쪽 끝인 정주(定州)에서 태수로 재임했으며, 대륙의 남쪽 끝인 혜주(惠州)와 국토의 최남단인 해남도 담주(儋州)에서 유배생활을 했으니, 넓디넓은 국토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닌 것이다. 이번 답사를 통해 중국이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토의 끝에서 끝으로 돌아다녀야만 했던 소동파의 인생이 파란만장 그 자체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오히려 파란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역정이 그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각지의 풍토와 풍속과 인정을 맛보게 하고, 백성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그에게 잠재해 있던 문학적 재능을 촉매로 삼아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승화했다고 할 수 있다.”(383쪽)

저자는 또 말한다. “소동파는 아직도 그가 머물렀던 곳에 살아서 숨 쉬고 있었다. 도처에 그가 지은 누대가 있고 제방이 있고 다리가 있었다. 그가 생전에 학문을 강론한 학당과 후세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 있고, 그를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은 사당과 기념관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목적이 전시되어 있거나 작품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거나 조각상이 세워져 있기도 했다. 또 그의 성이나 호를 따서 명명한 학교, 공원, 누대, 정자, 탑, 아파트, 도로가 있고 그의 호를 상호(商號)로 삼은 상점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386쪽)

아울러 본서는 [부록]으로 ‘소동파의 인생 역정’의 핵심을 제시해 놓아 생애의 순서에 따라 독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했다.

또한 ‘구매자들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본 후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장사꾼이야기, 상인과 옥신각신한 이야기, 호텔비나 차비의 흥정 등은 필자에겐 여행에 함께 참가하는 느낌을 준다. 이러한 세세하고

시시콜콜한 기록도 본서의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세세한 기록은 큰 것을 보기 어려울 가능성도 다소 존재한다. 문외한이나 일부 독자에게는 다소 산만하고 지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필자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걸 때 수신자 부담으로 걸었는데 받지 않을 경우도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당시의 중국 호텔의 상법에 대한 토로도 예전 필자의 경험과 동일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그만큼 사실대로 현대 중국의 면모를 실감나게 기록하였다.

중국 여행의 또 하나의 매력인 음식이 다양하고 값이 싼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겹하여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도 여행중 곳곳에서 대비되고 있다.

그의 소동과 문학기행은 많은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한다. 저자는 행로에서 동파와 관련된 것이라면 가급적 다 찾아볼 요량이었는데, 그 열정이 인정된다.

특기할 만한 것으로, 광둥성 혜주의 동파 소학(초등학교)에서는 소학 과정 6년 동안 2002년부터 전교생에게 소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 동파 문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여 매주 한 시간씩 소동파와 관련 있는 강의를 한다고 한다. 이 방법을 우리 교육에서도 적용하여, 그 지방과 관련된 옛 현인군자에 대한 문화교육을 실시한다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인생관, 국가관 등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본서에서 굳이 한 가지 목차상의 오류를 지적하자면, 제5장 ‘강소 지역’에서 3절 “진강(鎮江)에서 고우(高郵)까지”는 “진강(鎮江)에서 양주(揚州)까지”로 해야 옳을 것이고, 또 같은 장 4절의 “남경(南京)과 저주(滁州)”는 “고우(高郵), 남경(南京) 및 저주(滁州)”로 수정해야 될 것이다.

소동과 문학을 연구하고 그 유적지를 답사하여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문학, 문화, 그리고 삶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저자의 열정과 노력, 근면성에 찬사를 보낸다.